

이선영 미술평론가

<이응노미술관 아트랩대전 2021 작가와의 만남>

깔끔함과 기이함이 함께하는 김재경의 작품들에는 가구 디자이너였던 경력이 반영되어 있다. 정해지지 않은 기능을 가진 사물의 제작과 완벽한 마감처리가 특징이다. 심지어 이응로 화백의 수목 산수화의 붓 스트로크를 만들어 벽에 붙인 작품은 한 작가의 필적이 유지되는 붓질마저도 형태화한다. 공산품에 특정 예술가의 작품을 무늬로 넣어 생산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이다. 민속 공예품에 자주 사용되는 방식인, 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종이로 씌워 형태를 만든 다른 작품들 또한 표현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다. 방이나 함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담는 공간과 관련된다. 예술작품 또한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는 점에서 최초의 전공은 중요하지 않다. 김재경이 이전 작품부터 도량형 등에 대해 가졌던 관심에서 디자인과 예술이 갈라지는 지점을 생각할 수 있다. 대량 생산과 소비를 전제하는 기능적 사물에는 기준이 있지만, 예술은 기준을 끝없이 무너뜨린다는 차이가 있다.

물론 디자인의 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행의 도전을 받지만, 처음부터 변화를 위한 변화가 강요되다시피 하는 현대 예술보다는 유효기간이 길다. 글로벌 기업의 치열한 경쟁에서 알 수 있듯, 기준이란 선점하는 권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앓은 사람을 감금하는 괴상한 의자는 권력의 편재를 암시한다. 자리로 대변되는 사회적 위치에 대한 욕망은 스스로를 길들이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분업이 극도로 세밀해지면서 만드는 즐거움이 기계로 이양됨에 따라 장인의 영역은 줄어들게 됐고, 장인은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자유와 소외에 직면했다. 한편 ‘순수’ 예술은 자유를 남용하면서 소통에 문제가 생겼고, 자신의 작품을 명품의 대열에 합류시키고자 하는 작가에게 완벽한 기법의 문제는 중요해졌다. 기계에 바탕 한 대량 생산소비 시스템은 디자인과 예술의 수렴지점을 만들었다. 김재경의 작업은 이러한 경계 지대에 자리하면서 새로운 필요 자체를 창안하고 제작하는 즐거움을 누린다.